5·18 증인들 "헬기 사격 없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2차 재판서 시민 5명 당시상황 증언

가로수 잎 떨어지고 아스팔트 깨져…직접 총상피해 입기도

"전씨는 자기 양심을 배반하고, 역사와 국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 자체가 없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두환(88)의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 2차 공판기일이 13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출석하지 않았지만,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민 5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980년 당시 해군 제3 해역사령부 소속 군의관(대위)이자 침례교도였던 김모씨는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자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당시 선교대회가 예정됐다가 취소됐는데 총소리가 들리자 걱정이 돼서 선교사촌을 찾아갔다. 그는 "석양 무렵 목사님이 2층 발코니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목사님이 '어떻게 헬기에서 시민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느냐'고 나에게 물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저는 '시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공포탄 내지는 광주천을 향해 위협 사격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택 2층과 2㎞-3㎞ 떨어진 도청·전남대병원 방향에서 헬기 한 대가 제자리에서 돌면서 총을 발사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며 빛이 번쩍하는 섬광이 발생했다"며 M16 같은 자동소총을 쏜 것으로 추정했다.

전두환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피터슨 목사와 부인인 바바라 피터슨 여사가 그동안 저서 및 검찰 조사에서 김씨와 함께 헬기 사격을 본 사실이 없는 점, 일부 세부 진술이 피터슨 목사의 진술과 어긋나는 점을 토대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내가 군인이었으니 피해가 갈까 봐 그런 것"이라고 항변했다.

승려로 활동하다가 독재 반대 시위에 동참했던 이광영씨는 1980년 5월21일 오후 2시를 전후해 군용 지프를 타고 광주 남구 월산동 로터리 인근을 지나다가 헬기 사격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군에서 소총과 자동소총, 기관총 등을 다뤄봤다는 김씨는 "50-100m 상공에서 총을 쏴 총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경험했던 기관총 소리와 비슷했다. 총알이 가로수를 관통해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지상에서 쏘는 것이 아닌 수직 상공에서 총격이 있었으며, 아스팔트가 불꽃과 함께 깨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나 인도에 여고생으로 보이는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피를 많이 흘려 자신의 옷으로 지압을 하며, 가장 가까운 적십자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1980년 5월21일 남편을 찾아 천변을 다니다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정선덕씨, 광주에 출동한 502 항공중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헬기 사격을 목격한 최형국씨, 옛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헬기에서 쏜 총에 맞았다고 진술한 남현애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다.

남씨는 재판 출석에 앞서 "전일빌딩 인근에서 헬기에서 쏜 총탄에 맞아 얼마 못가 하반신이 마비돼 총탄 제거 수술을 받았고, 해당 총탄은 지난 1996년 미국 무기실험연구소에서 자동기관총에서 발사된 총탄 일부라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승지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총탄에 맞아 부상당한 남현애·이광영씨가 13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두환 회고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헬기사격 목격담을 증언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통합병원서 시신 200구 소각 추측"

5·18 당시 광주서 활동한 김용장·허장환씨 국회서 증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주한미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씨는 13일 "광주통합병원에서 희생자 시신 200구 정도가 소각됐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렇게 계산해도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어 시신을 어디론가 다른 지역으로 수송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505보안부대 수사관으로 근무했다가 1988년 광주청문회에서 양심선언을 한 허장환씨도 함께 회견에 나서 "전두환이 (계엄군 발포 직전인) 5월 21일 광주에 다녀갔다는 것은 확인된 사항"이라며 "입증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김용장·허장환씨와의 일문일답.

▲시신소각과 희생자 암매장 관련한 첩보는 있었는가.

-(김용장) 5공 청문회 때 정호용 씨가 '암매장은 없었다. 단, 있다면 가매장이 있었다'고 스스로 대답했다. 가매장한 시신은 재발굴해 일부는 광주통합병원에 가서 소각됐고, 일부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해공항으로 수송됐다. 광주에서 김해공항에 간 이유는 제 추론에 의하면 거기서 틀림없이 수장했을 것이다.

▲당시 가매장한 시신을 지문채취 했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허장환) 거의 100% 확인했다.

▲그들은 행방불명으로 처리됐는가, 아니면 사망자로 확인됐는가.

-(허장환) 그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시신유기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매장된 시신 중 지문을 채취한 시신은 몇 구 정도인가.

-(김용장) 그 숫자는 보고서에 넣지 않았다. 다만 추론은 할 수 있다. 당시 광주통합병원에서 개조한 굴뚝에 2구 정도를 넣고 소각하면 2시간 정도 걸렸다. 하루에 20구씩, 10일 동안 200구 정도 소각하지 않았겠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증거는 없다. 다만 그렇게 계산해도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어 어디론가 다른 지역으로 수송됐을 것이다.

▲보안사령부가 시민 행세하는 사복군인(편의대)을 광주에 투입한 사실을 확인했나.

-(허장환) 1988년 청문회 당시 정호용씨가 답변 과정에서 '요원들에게 편의복을 사주기 위해 왔다 갔다'고 말했다. 이는 정호용씨가 편의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중요한 발언이다. 편의대를 총괄 지휘한 사람이 광주일고 출신 홍석률 대령이었다. 공작대가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모른다. 다만 30-40명이 아니고 수백명이 와서 활동하고 그때그때 활동 철수하고 다시 다른 사람들로 교체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5월 21일 전두환이 광주에 왔다는 증거 서류가 국내에 남아있는가.

-(김용장) 5·18 당시 작성돼 미 국무성과 국방부에 올라간 보고서는 이미 비밀 해제가 됐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청하면 당연히 내가 쓴 것들이 나올 것이다.

-(허장환) 전두환이 5월 21일에 광주에 왔다는 것은 확인한 사항이다. 전두환이 다녀갔다는 문제는 회의 석상에서 거명된 문제이며, 입증해 드릴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제39주년 5·18 기념식 수송버스 운영

14개 지역서 5·18묘지까지 총 18대…셔틀버스 2개 노선도

광주시는 광주지방보훈청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자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수송버스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먼저 수송버스는 14개 지역에서 국립5·18민주묘지까지 총 18대가 운영된다.

출발장소는 ▲광주시청(8:00) ▲동구청(8:00) ▲서구청(8:00) ▲남구청(8:00) ▲북구청(8:00) ▲광산구청(8:00)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8:00) ▲광주YMCA(8:00, 8:30) ▲임동119안전센터 앞(8:00, 8:30) ▲5·18기념문화센터(8:00) ▲광주보훈병원 건너편(8:30)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앞(8:00, 8:30) ▲광주송정역 시외버스정류장(8:00, 8:30) ▲각화동 농수산물 시장 앞(7:30, 8:30) 등이다.

이 버스들은 기념식이 끝난 후 오전 11시30분 국립5·18민주묘지 주차장에서 당초 출발장소로 돌아오게 된다.

이와 함께 셔틀버스도 기념식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광주동초등학교-국립5·18민주묘지 ▲수곡3거리-국립5·18민주묘지 등 2개 노선을 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수송버스와 셔틀버스는 모두 무료로 탑승 가능하다.

운행시간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광주민주인권포털(www.gjh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많은 참배객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과 수송버스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범 기자